

광주형 일자리 기반 현대차 광주 투자협약, 노동계 불참에 빨간불

광주시 “투자, 준비완료...조만간 결론”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현대자동차 광주 투자협약에 노동계가 불참을 공식 선언하면서 협약 체결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광주시가 현대차와의 투자자 간 협의, 노조와의 상생 소통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해 좌초 위기에 놓인 현대차 투자사업이 다시 분궤도에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된 3~5일간의 유류 공급을 미치고 전날 귀국한 이용섭 광주시장은 귀국 직후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과 함께 현대자동차 대표와의 긴급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사민정 대타협을 바탕으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사업”이라고 설명한 뒤, 노동계가 불참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용섭 시장, 이병훈 부시장·현대차 대표 면담 투자 의지 재확인... “노동계와 대화 계속할 것”

광주형 일자리의 4대 원칙, 즉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 책임 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에 힘쓰면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현대 측에 전달했다.

이에 현대 측은 ‘세팅이 다 됐다. 신차개발에 2000억~3000억원 예상되고 공장을 짓기 위해 기술자들도 대기 상태. 노사민정 대타협에 기반한 적정임금을 설정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 모두 스탠바이 시켜놓는데 노조가 불참키로 해 광주 투자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밝혔다. 이병훈 부시장이 전했다.

현대차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

중이 15.2%로 도요타(7.8%), 폭스바겐(9.5%) 등 경쟁사에 비해 높아 최근 20년 동안 국내에 새로운 공장을 구축하지 못한 점도 광주 투자의 주요 배경이라고 현대측은 덧붙였다.

현대차는 또 지난 6월 시에 제출한 투자의향서에 대해서도 ‘해외투자를 국내투자로 전환시켜 일자리 창출과 국내 제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광주시와 현대차 양측이 윈윈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의향서를 제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시장은 이날 출입기자 차담회에서 “노조가 협약 불참의 근거로 제시한 저임금 구조(초임연봉 2100만원)와 밀실·비밀 협약설은 모두

사실과 거리가 멀다”며 “현봉은 노사 양측의 입장과 시장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특히 경영수지분석을 바탕으로 3500만원(주 44시간, 하루 8시간 기준) 수준에서 결정하기 위해 현대 측과 진지하게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금 못지 않게 지속가능성이 매우 중요한 만큼 현대차에 지속적인 고용 창출이 이뤄지도록 시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러모로 어렵긴 하지만 현대차 투자 협약이 광주형 일자리의 최초 모델인 만큼 한국노총 등 노조와도 계속 소통하고 노동계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현대차와의 투자자간 지속적 협의와 노조와의 상생 대화를 통해 빠른 시일안에 협약과 관련한 결론을 도출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은홍 기자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대선)는 20일 영암축협에서 공동방제단 방역요원을 대상으로 가축방역을 위한 직무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 결의를 통해 상시방역 체계 구축 의지를 다졌다고 20일 밝혔다.

전남농협 공동방제단 상시방역체계 구축 결의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대선)가 20일 공동방제단이 상시방역체계 구축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

전남 농협은 이날 영암 축협에서 공동방제단 방역요원을 대상으로 가축방역을 위한 직무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 결의를 했다.

이날 교육은 전남의 가축 공동방제단 101개반 130명이 참석했다. 방역정책에 대해 강의를 진행한 이용보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과외 대응이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안에 철저를 기해 방지하는 것이 발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면서 “예방에 중점을 두고 세밀

한 방역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 중동개발사업소 문성호 수의사는 “가축 전염병이 주로 겨울철에 발생 하는 만큼 소독제의 선택과 소독의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환경에 따른 소독제의 선택과 특성을 알아야 하고 올바른 소독방법을 통한 방제활동이 차단방역의 기본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전남의 공동방제단은 19개 축협 101개반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소독 대상 농가수는 1만2075곳, 연간 28만9800회의 소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은홍 기자

전남 태풍 ‘솔릭’·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342억 확정...추석 전 지급

전남도는 제19호 태풍 ‘솔릭’과 이어 내린 폭우에 따른 전남지역의 피해 복구비가 총 342억 원으로 확정됐고 완도 보길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최종 확정해 통보해온 전남지역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액은 공공시설 52억 원, 사유시설 25억 원, 총 77억 원이다.

이에 따른 복구액은 공공시설 162억 원, 사유시설 180억 원, 총 342억 원이다.

피해 규모가 컸던 완도 보길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지방비 부담분 57억 원 가운데 24억 원을 국비로 전환해 추가 지원하게 됨에 따라 전남도와 완도군의 지방비 부담이 줄게 됐다.

전남도는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조기에 해소되도록 주택 침수 및 농어업 피해 등 사유시설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국비 지원이 확정되기 전, 시군의 예비비를 확보해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되도록 추진해왔다.

또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지원 요청하는 등 재해복구사업이



완도군은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입은 보길면 일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20일 밝혔다.

신속히 추진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피해 수습과 복구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주흥식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편안한 한가위를 보내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되도록 시군에 당부했다”며 “신속한 복구비 집행을 통해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도민들께 하루 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동구, 청년 활동가들과 간담회 개최

광주 동구는 지난 19일 지역 청년활동가들의 생생한 현상이야기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을 초청해 청년정책·청년창업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동구가 추진하는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청년들과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강수훈 스토리박스 대표, 윤현석 컬처네트워크 대표 등 20~30대 7명의 청년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청년활동가들은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시적인 소통체계 마련, 동구에서 청년문화가 꽃필 수 있는 토양 제공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서구, 추석 맞아 후원 손길 이어져

광주 서구청에 추석을 맞아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신세계와 한국자산공사에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 것.

지난 12일과 13일 광주신세계에서 준비한 특별패키지 ‘사랑의 S-BOX’가 지역 아동 100명에게 전달됐다. 이번 추석맞이 특별패키지 박스에는 신선한 소고기와 삼겹살이 채워져 아이들에게 전달됐다.

한국자산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홍창의본부장)에서는 서구에 학교 밖 비인가 대안학교 래미학교에 5,000전원의 통근 추석 선물을 기부했다. 서구 화정동에 있는 래미학교는 도시형대안학교로 광주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하고 있다.

남구, 폭우 피해업체 특례보증 지원

광주 남구는 지난 달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관내 상가와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특례보증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20일 남구에 따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맺은 광주 신용보증재단과 남구는 최근 협의를 통해 지난 8월 27일부터 31일 사이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기준에 맞지 않는 협약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었던 특례보증 지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3,000만원을 증액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보증요율은 원칙적으로 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2%까지 차등 적용된다. 광주 신용보증재단과 남구는 침수 피해 업체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0.8%로 고정하기로 했다.

북구, 2018 복구 사회교육 운영

광주 북구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능력개발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광주 북구는 “오는 11월 1일까지 관내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의 사회 진출 및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2018 복구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끊임없는 도전! 우리의 꿈&성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교육은 지난해 실시한 치매예방·관리 교육전문가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 스트레스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해 조성된 한국웃음치료연구소장 등 관련 전문 강사를 초청해 총 6개 강좌를 운영한다.

이에 북구는 20일 오전 10시 시화문화를 문화관 커뮤니티센터에서 개강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자격증 취득 강좌와 현장학습을 진행한다.

광산구-민주당 지역위, 민선7기 첫 당정간담회

19일 광주 광산구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와 구청에서 ‘2018년 당정간담회’를 개최했다.

민선7기 출범 후 처음 열려 상권계를 겸한 이번 간담회에는 김삼호 광산구청장과 공직자, 민주당 광산구 갑·을 지역위원장과 시·구의원 등 10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지역위원회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자치분권정책협의회’ 구성에 큰 틀에서 합의하는 등 민선7기 광산구청 운영방향과 지역위원회 협력사항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를 다짐했다.

임행택 기자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세상의 뉴스를 아낌없이...

湖南新聞이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구독신청·광고문의 : 062-224-5800
●기사제보·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한정승 인공고

피사속인 망 권영일[1980. 02. 09.생. 2018. 06. 04. 사망, 최후주 소 광주 서구 동천로 25, 106동 201호(동천동, 동천마을1단지아파트)재산상속에 대하여 2018. 08. 16. 광주가정법원 2018년단3347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8. 09. 19. 수리심판을 받았으므로, 재산상속한정승인에 따른 민법 제1032조에 의하여 망인에 대한 채권자에게 다음과 같이 공고할. 공고 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 함.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2018년단3347호 상속한정승인
공고인: 김형신(권유림, 권유찬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전남 장성군 장성읍 성산2길 43
한정승인수리일: 2018. 09. 19.
공고기간: 2018. 09. 21부터 2018. 11. 21.까지(2개월 이상)
신고 장소: 광주 동구 지산로 71-1(지산동) 법무사 조기혁 사무소
전화 : 062-236-1255, 1257)
2018. 09. 21.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석면 해체공사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석면조사

측량>>토목설계>>도시계획
토목공사>>창업상담>>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6번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노동법 기업컨설팅 ▶산재업무대리
▶급여체계 정비사 ▶징계(해고)자문
▶4대보험 무료대행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음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